

비아그라 全盛시대

미국 정부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임포치료 복용약

‘비아그라’의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 그 후 비아그라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 속에 판매되었지만 이 약을 복용한 사람중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무리 좋은약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洪性默

〈재호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

남 성에게 있어 성에 관한 모든 문제, 특히 발기장애만큼 불안, 염려,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남성들의 자궁심은 발기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스스로가 남성다움을 잊었다고 평가한다.

성관계시 남성이 발기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발기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임포(impotence)라고 명한다. 임포로 인해 전 세계 수십억의 남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소에 관계없이 10명중 2명 정도가 임포증상을 갖고 있다(Steidle, 1997). 미국의 경

우 2천만명 이상이 임포를 겪고 있으며(NIH, 1992), 특히 50~70세의 미국 남성 중 50% 이상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Lewis, 1995). 호주의 경우 약 1백만명 이상이 임포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중 5%도 안되는 남성만이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Smith & Hill, 1998). 한국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비율로 추정해 본다면 약 3백만명이 만성적 발기장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만성적은 아니라 해도 이러한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면 약 6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Hong, 1997).

복용하는 최초 임포치료약

‘1998년 3월 27일’은 임포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남성들에게 획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해준 역사적인 날이다. 바로 이 날, 미국 정부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화이자(Pfizer) 약품에서 개발한 임포치료 복용약 Viagra(학술명 : Sildenafil)의 판매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원래 Viagra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남성발기에 탁월한 효능이 있따라 보고됨에 따라 다시 발기장애 치료제로 개발된 약품이다. 1993년부터 당뇨, 혈관이상, 전립선암, 척수이상 등 신체적인 원인으로 발기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4천5백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임상실험을 한 결과 70~80%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임상실험에 직접 참여한 Gilbert박사도 Viagra의 장점은 다른 임포치료와는 달리 강제로 발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충동을 느낄 때만 발기를 촉진시켜 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치료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사들도 있다. Australian Centre for Sexual Health의 McMahon박사는 “Viagra는 기적의 약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약이 마치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듯 생각하고 있으나, 유일한 장점은 입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일 뿐이며, 실제로 주사요법만큼 그 효과가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복용한 남성 60여명 사망

Viagra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며, 하루에 한번 이상 복용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다른 발기장애 치료방법과 병행해서 사용한 임상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Viagra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Viagra는 미국 FDA로부터 임상실험 결과에 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부작용에 관해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니트로글리세린(Nitro-

glycerin)을 복용하고 있는 심장병 환자는 Viagra를 복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두 약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고 졸도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미국, 일본, 이집트 등지에서는 이 약을 복용한 후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원인은 Viagra의 독특한 약효 때문이 아니라,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품과의 상승적인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장병과 관련된 부작용 이외에, 최근 보고자료에 의하면 82세의 어느 노인은 이틀에 Viagra 3정을 복용한 후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두 노인의 경우는 Viagra 복용 후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변해 벼려, 심장에 충격요법을 한 후에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Viagra를 복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Viagra를 복용하지 않은 정상인에 비해 2.5배나 된다. 또 Viagra를 복용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1백명의 여성중 15명이 방광염에 걸렸다고 한다. 따라서 Viagra를 복용하기 앞서 발기장애의 원인에 대한 전문의사의 진단과 sex therapist의 철저한 상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 복용하면 중독될 수도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인이 심리적인 불안, 스트레스 또는 멀진 성행위를 위한 불안감(Performance Anxiety) 때문에 발기가 안되는 경우도 Viagra를 복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Viagra 약품 자체가 심리적인 원인을 제거해주지 못하므로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심리적인 원인이 제거되면 의학적인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발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Viagra는 성기능 또는 성욕을 증진시켜 주거나 AIDS와 같은 성병을 예방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정상인의 경우 이를 복용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 둔다.

심장 컨디션 등 진단 필요

상기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iagra라는 약품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종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 몇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째,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거의 모든 남녀 성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Viagra는 복용 알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발기장애 치료방법보다 사용이 간편하며, 아울러 사용여부를 본인이 드러내기 전에는 파트너가 알 수 없고, 눈치도 채지 못한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요법은 위의 문제점들을 커버하지 못하였다.

셋째, 임포증상을 가진 남성 뿐 아니라 정상인으로서 더 강한 발기를 원하는 남성들도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로 많은 남성들이 정력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의 제품 설명에 의하면 정상인의 발기 상태를 더 강하게 또는 더 오래 지속 시켜주는 약효는 없다. 정상인이 항우울제 약품을 복용한다고 해서 기분이 더 명쾌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National Drug & Alcohol

Research Centre의 Dillon 박사는 Viagra 복용 후 성관계를 하게되면 심리적으로 그 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생겨 자칫하면 중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넷째, Viagra는 남성용 임포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여성들도 오르가슴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례가 있어 많은 여성들이 이 약의 구입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성관계시 여성의 음핵은 남성의 성기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이 약이 도움이 되리라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임포 환자의 독특한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Viagra의 개발 이후로는 거의 모든 발기장애 치료에 이 요법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 요법의 간편성 때문에 과거에는 성기능장애 치료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 의사들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Viagra를 처방해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에 대비, 발기장애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첫째, 각 환자마다 발기장애의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Viagra를 처방하기 전 정확한 원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Viagra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심장 컨디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셋째, Viagra치료법이 실패할 경우 효율적인 다른 치료법(예: 주사, 뮤즈 요법 등)도 존재하므로 환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넷째, 심인성 발기장애나 복합 증상을 가진 경우에는 성치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7)